# 공동체와 문화 Ⅳ.
## 성숙한 사람에게는 인내가,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 1. 온전함 몸

[에베소서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몸을 되라고 말씀하신다. 몸이 성장해야 할 분명한 수준이 있다. 그것이 '온전함'이다. 온전함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상태이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몸'은 어떤 상태일까?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재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정리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몸'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다.

### 2. 온전한 몸의 기준

#### (1)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

교회의 영성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됨의 영성이 제일 중요한 영성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비결은 사역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4:4절의 말씀처럼 '몸'의 정의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만함에 이르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 즉,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볼 수 없었던 영역이 보여져야 한다. 그래야 열린다. 열려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아야 분명해진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셨던 것이다. 그 하나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창조는 바로 '에하드'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한 몸에 이루는 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영성의 핵심이다. 우리가 분리된 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 (2)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에베소서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12:12, 14, 19, 20]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2: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과 지체의 관계는 분명하다.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럿이며, 많다는 개념이다. 이 단순한 개념이 중요하다. 온전한 한 몸이란 다른 여럿 지체가 함께있는 상태를 말한다.

**ㄱ) 다른 것이 존중되고 있는 상태**
**ㄴ) 다른 지체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ㄷ) 다른 지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려는 상태**
**ㄹ) 기쁨과 아픔이 공유되고 소통되고 있는 상태 (로마서 12:26)**

### 3.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일들

**(1) 각 지체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역할이 중첩되지 않은 상태가 온전한 몸의 정의이다. 중첩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균형은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균형은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지체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균형은 깨진다. 균형이 깨지면 힘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그 영역에 과부하를 일으킨다. 균형이 틀어짐으로 결국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모든 문제는 순환이 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 생명은 순환되는 것이다. 정체되는 것이 아니다.

**(2) 역할의 중첩을 통한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 - 성숙**

중첩으로 오는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몸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 몸의 성숙도란, 구체적으로 각 지체의 성숙도를 말한다. 만약 한 영역이 부족하면 다른 영역으로 그 부족한 영역이 대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이란? 남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한다. 나를 넘어선 이타적인 삶을 말한다. 예수님이 가장 성숙한 분 이라는 것은, 그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며,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며, 그 온전함이 성숙이다.

**ㄱ) 성숙한 지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수고가 필요하다. 연약한 지체가 성장해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지시겠다는 말이다. 우리의 쉼은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성숙한 공동체란? 내 문제 말고 연약한 지체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데 있어서 성숙한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이다.

**ㄴ) 미성숙한 지체는 성장해야 한다.**

미성숙한 지체가 해야할 일이 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내 짐을 짊어지는 성숙한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빨리 '성장'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겸손'이다. 겸손이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사람이 성장한다.

### (3) 인내와 겸손

인내와 겸손이라는 두 기둥이 강력하게 설 때, 각 지체는 든든해진다. 그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4)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이란 회복이 되는 몸을 말한다. 충전이 되는 몸이다. 내부가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내부와 속이 건강해야 외부로 힘을 분출시킬 수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은 구체적으로 외부적 힘으로 분출될 수 있었다.